

지역 매아리

정읍시의회 예결의원 선임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25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도형 이익규, 조상중 정상섭 김은주 김재오, 이복형, 정상철 의원을 선임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수성근린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수성동 근린공원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센터내 3~5층의 타워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상섭 의원은 변화하는 관광주세에 맞는 역사문화콘텐츠의 보완은 절실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불거리, 먹거리를 함께 갖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우리시도 고유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띤 조형물, 조명 등 모형형상, 백제 복식체험 등 역사문화콘텐츠의 보완으로 관광 유동인구 시내유입의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후 계획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전을 처리한 후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3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방문의 해' 성공 주력

정읍시, 추진 실적·개선사항 점검... 유 시장, 서비스 개선 등 강조

정읍시가 아쉽게 준비한 2019~20 정읍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읍 관광의 비약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5일 유진섭 시장과 시 간부급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 정읍방문의 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했던 2019년 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2020년 추진에 앞서 기반조성이나

관광객 수용태세 등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또, 2020 정읍방문의 해 본격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사전 점검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획 홍보와 이미지 개선, 수용태세 확립, 시민참여 촉진, 콘텐츠 발굴 운영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각 부서장의 심도 있는 보고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 시장은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숙박

등 요식업체 친절마인드 함양과 위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화·역사·예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전 실·과·소와 유관기관, 단체의 역량을 정읍방문의 해에 총결집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인문학적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친절 가득한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12만 정읍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송갑석 의원 등 예결소위 만나

막바지 예산 확보 활동 펼쳐

권익현 부안군수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소위 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말 국회 예결위의결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도 통과해 최종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권 군수는 이날 송갑석·전철철·강훈식·지상욱 국회의원 등 예결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부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역사공원 조성사업, 2023 세계잡배리 직소전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등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소위 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다. 이어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종회·인호영 국회의원과 부안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 등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양종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2023년 세계잡배리의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카드수수료 50만원까지 지원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1억 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카드매출액의 0.3%에서 0.8%로, 금액은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여신금융협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장쓰레기 수거·처리합니다!

고창군,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 추진

채소 껍질·뿌리 등은 투명비닐봉투 사용

고창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를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사전 홍보·집중수거·사후관리)로 구분해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기간에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등을 각 읍·면·이장

회나 자체교육시 집중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점검한다.

집중수거기간에는 기동차리반을 운영해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기동반을 통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상태를 점검하고, 특별단속도 펼친다.

사후관리기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해

패각한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특별차대대책기간 중 김장재료를 다듬으면서 나온 배추·무 등 채소를 다듬은 껍질과 뿌리 등 김장관련 쓰레기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물로 씻거나 소금물에 절이는 등 김장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기계고장 원인이 되는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하고, 물기를 털고 잘게 썰어 배출해줄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지역자율방재단, 전북도 방재활동 '우수' 선정

각종재난대응 훈련참여
재해취약지역예찰·복구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역 방재 활동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방재 활동 경진대회는 전북도내 지역 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과 우수활동사례 공유 등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평가는 시·군 자율방재단의 방재단 역량, '방재단 홍보', 방재단 활동, '네트워킹 역량' 등 총 4개 분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PPT 자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민간 방재전문가로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각종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하고 기상특보 시 재해취약지역 예찰과 복구 활동을 펼쳤다.

또,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총 47회의 활동사례를 발표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시 구호 활동과 재난·재해 예방 캠페인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역 방재 활동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열기 속막 올려

정읍스포츠클럽 '팀시리우스' 경기로 1차전 시작
전국 96개팀 1400여 명 선수 정읍에서 기량 뽐내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하 축구 페스티벌)'이 지난 23일부터 국민체육센터·종합경기장·신대인 축구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과 축구 페스티벌 관련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축구 페스티벌에는 1·2차 경기를 합쳐 총 96개 유소년 클럽팀이 참가했다.

1차 경기는 지난 23일 초등학교 3학년 리그인 '정읍스포츠클럽'과 '팀시리우스' 경기를 시작으로, 종합경기장에서 1·2·3학년 국민체육센터에서 4·5학년 신대인 축구장에서는 6학년 A·B리그가 진행됐다.

2차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이들 간 같은 장소에서 예선 풀리그를 거쳐 내달 2일에 본선과 결승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1400여 명의 선수와 900여 명의 학부모, 그리고 200여 명의 임원 등이 정읍을 찾을 전망이다.

이들이 정읍의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수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방문한 모든 분에게 정읍이 좋은 추억이 되고,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축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읍의 축구가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크 메카 정읍'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으로 국제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시 홍보와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와 함께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양종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2023년 세계잡배리의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꿈이 갈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3ea/12%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